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고선희¹ · 권규린² · 김민서³ · 노기라⁴ · 안소정⁵ · 이정현⁶ · 주가을⁷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간호사¹,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간호부 간호사²,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간호부 간호사³, 분당차병원 간호국 간호사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간호부 간호사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 간호사⁶,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⁷

Awareness of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and Knowledge of High-risk Pregnancy among University Students

Go, Seon Hui¹ · Kwon, Gyu Rin² · Kim, Min Seo³ · Noh, Gi Ra⁴ · Ahn, So Jung⁵ · Lee, Jeong Hyeon⁶ · Joo, Ga Eul⁷

¹Nurse, Departmen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Bundang

²Nurs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³Nurse,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Ilsan

⁴Nurse, Department of Nursing, Cha Bundang Medical Center, Bundang

⁵Nurse, Department of Nursing, Seoul Seonam Hospital, Seoul

⁶Nurse, Department of Nur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Ilsan

⁷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Korea

Purpose: This research aimed to study the awareness of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and high-risk pregnancy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250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do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awareness on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and high-risk pregnancy. **Results:** The average age of participants was 22.5. The ideal marriage age was 29.8. 201 (80.4%) participants had an intention of getting married, and 160 (60.4%) answered they should have children. The ideal age of first childbirth was 30.4 and last childbirth was 35.1. There were 126 (50.4%) with prior education regarding high-risk pregnancy, subfertility or infertility. The score of needs for education associated with pregnancy was 7.6 out of 10. The average correct answer rate of awareness of fertility issues was 30.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25% of men and 38% of women overestimated the age at women are most fertile. Only 23.7% of men and 25.9% of women knew the correct age when there was marked decrease in women's fertility. **Conclusion:** Awareness of a lack of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and high-risk pregnancy may influence future family planning and health.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plan programs or education for marriage, pregnancy, and childbirth.

Key Words: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High-risk pregnan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국제적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하였고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낮았다(OECD, 2017; Statistics Korea, 2017).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청

주요어: 결혼, 출산, 가임력, 고위험 임신

Corresponding author: Joo, Ga Eul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University of Suwon, 17 Wauan-gil, Bongdam-eup, Hwaseong 18323, Korea.

Tel: +82-31-229-8357, Fax: +82-31-229-8316, E-mail: 79rkdmdl@hanmail.net

투고일: 2017년 11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9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4일

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 중 하나이다(Choi & Lee, 201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5; Park, 2016).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가치관으로 결혼의향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를 포함하며, 이는 성역할관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Choi & Lee, 2014; KIHASA, 2015; Kim & Hong, 2013; Park, 2016). 자녀관은 자녀에 대한 가치로 자녀를 갖고 양육하려는 동기로 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만족감과 부담감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 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관은 성장 과정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Choi & Lee, 2014; KIHASA, 2015; Kim & Hong, 2013; Park, 2016).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5.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며, 평균초혼연령은 남자는 32.8세, 여자는 30.1세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남자의 혼인 구성비는 30~34세가 38.8%, 25~29세가 21.6%, 35~39세가 17.3% 순으로 2007년 이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으며, 여자의 혼인 구성비는 25~29세가 35.6%, 30~34세가 31.2%, 35~39세가 10.7% 순으로 30대 혼인율이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1.6배 이상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증가는 초산모의 출산연령 증가와 연결되고, 난임 혹은 불임의 증가, 고위험 임신과 고위험 신생아의 중요한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Je & Choi, 2014). 2016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출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35세 미만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는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고령산모는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며, 고령산모는 고혈압, 자궁근종, 비정상 태위, 분만시간의 지연, 기계분만, 조산, 주산기 사망률, 저체중아 등의 산전합병증과 주산기 사망률이 증가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Heo et al., 2004; James, 2011). 2016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37주 미만 조산아의 구성비는 7.2%로 2006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으며, 임신 기간별 산모의 평균 연령은 37주 미만에서 증가 추세로, 37주 미만 조산아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이 33.0세로 가장 높았다(Statistics Korea, 2017). 조산은 주산기 사망률과 이환율의 주요인으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폐 성숙, 뇌손상 및 저산소증 등으로 합병증과 신경학적 손상의 위험성이 높다(Oh, 2007).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 간 조산율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의하

면 산모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 출산력, 출생아 성, 출생아 수 및 출생 계절 등이 조산 발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며,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조산의 위험도 교차비가 1.572로 나타났다(Koo, Kim, Shim, Won, Lee, & Kim, 2006).

이와 같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을 감소, 출산을 감소, 초혼 연령 증가로 인한 고령임신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고 가족이나 개인에게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문제 위험을 증가시킨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초, 중고등학생, 대학생, 30세 이상 성인 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결혼관과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 가임력에 대한 인식 등을 각각 조사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을 함께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Baek & Kim, 2013; Bayrampour, Heaman, Duncan, & Tough, 2012; Choi & Lee, 2014; Heo et al., 2004; James, 2011; Johnson & Tough, 2012; KIHASA, 2015; Kim & Hong, 2013; Kim & Song, 2012; Kim, Yu, & Kim, 2012; Na & Kim, 2012; Park, 2016; Peterson, Pirritano, Tucker, & Lampic, 2012).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의 유럽과 미국, 홍콩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관과 가임력 관련 인식을 파악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가임력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확률이 높았다(Chan, Chan, Perterson, Lampic, & Tam, 2015; Lampic, Svanberg, Karlström, & Tydén, 2006; Meissner, Schippert, & von Versen-Höynck, 2016; Peterson et al., 2012; Sørensen et al., 2016; Vassard et al., 2016).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었고 가임력과 임신 관련 지식이 높았으나, 가임력이 낮아지는 시기에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었다(Meissner et al., 2016; Sørensen et al., 2016; Vassard et al., 2016). 결혼관과 자녀관은 임신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임신 문제에 있어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이 개인과 가족의 건강문제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 중 청년기에 속하며, 레빈슨의 성장발달 특성에 따르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도기인 성인전기 전환기(19~22세)와 이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초보인생 구조시기(22~28세)에 걸쳐있어 과도기적 상태에서 성적 문제들에 대한 갈등을 고민하기도 한다(Lee, 2007). 직업과 사회생활 또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결혼, 임신과 출산은 가

족주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성인 초기의 대학생은 점차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지만 건강습관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 수정 가능성이 크고, 미래의 부모로서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이 자녀의 건강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한 교육은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건강교육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Baik, Nam, & Ryu, 2012; Park, Lee, & Hong,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부모 세대가 될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가임연구에 포함되기도 하는 대학생은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저출산과 고위험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으로, G*Power 3.1 프로그램에서 t-test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50), 검정력 .80에서 산출하였을 때 적절한 표본 수는 남녀 각각 64명으로 총 128명이었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탈락률과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30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50부를 제외하고 최종 2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5월에서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설문조사와 구글 독스(Google Doc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활용 능력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중복 응답자 또한 연구자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 없었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도중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될 뿐 아니라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과 서면으로 알렸다.

4. 연구도구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중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문항 일부를 도구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의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와 20~60대 국민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민욕구 조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단순한 실태조사 설문지로 구성요인을 지니고 있지 않아 도구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결혼의향, 결혼적령기, 자녀의 필요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자녀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아이와 막내 아이 출산 적령기, 임신 관련 교육의 경험, 교육의 필요성, 교육 참여 의사 등을 포함한 10문항이었다.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5문항으로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포함된 하부척도이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였다.

2) 가임력 관련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은 Lampic 등(2006)이 개발한 가임력 관련 인식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가임력 관련 인식 측정도구는 스웨덴의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조산사인 간호사 2인, 심리학자 1인이 대학생의 가임력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자 개발한 도구로 연령대에 따른 가임력과 임신 확률에 대한 질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차례의 예비 시험(pilot test)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집단이 개발하여 선행연구들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 연구자와 자문가 모두 가임력 관련 인식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도구임에 동의하였다. 영문으로 된 원 도구는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간호학과 교수 1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의학박사와 공학박사 2인의 자문을 받아 번역·역번역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검증한 뒤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을 부여하였을 때 최저 0점에서 최고 8점이며, 정답률은 백분율(%)로 제시하여 백분율이 높을수록 가임력 관련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산모의 연령과 관련 있는 출산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으로 Je와 Choi (2014)가 Tough 등(2006)에 의해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한 최종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참은 1점, 거짓과 모름은 0점을 부여하여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이며, 정답률은 백분율(%)로 제시하여 백분율이 높을수록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χ^2 test),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χ^2 test에서 기대치가 5 미만인 칸이 있을 경우 Fisher's exact test, ANOVA 결과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 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

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차이는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250명으로, 남자가 76명(30.4%), 여자가 174명(69.6%)이었으며, 모두 미혼이었고 평균 연령은 22.53세이었다. 전공은 보건 계열이 54.8%, 비보건 계열이 45.2%였다. 가족 유형은 1인 가구인 1세대가 58.0%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가 32.4%, 부모와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세대가 9.6%순이었다. 본인을 제외한 형제 수는 '1명'이 58.8%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4.0%, '3명 이상'이 9.2%, '0명'이 8.0% 비율을 보였으며, 본인을 제외한 형제 수는 평균 1.35명이었다(Table 1).

2.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대상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80.4%로 많았다. 결혼 적령기는 평균 29.78세로, 30~36세가 51.6%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47.2%로 36세 이하가 약 99%를 차지했다.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대상자는 64.0%,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26.0%,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가 10.0%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라고 답한 대상자가 22.5%로 가장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가 17.5%,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가 15.8%,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어서'가 15.8%, '생각해본 적 없음'이 10.9%,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독신주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인생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녀가 살기 안전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희망 자녀수는 평균 2.14명으로 2명의 자녀를 원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자녀 수 결정 요인은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 부담이 38.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24.4%,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사회생활(직장 및 교육 등)이 19.6%, 기타가 6.0%,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의 유무(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4.4%, 보육시설의 유무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가 있었으면 해서, 현재 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76 (30.4)	
	Female	174 (69.6)	
Marital status	Single	250 (100.0)	
Age (year)	20~26	250 (100.0)	22.53±1.84
Department	Medical and health	137 (54.8)	
	Others	113 (45.2)	
Grade	Freshman	58 (23.2)	
	Sophomore	56 (22.4)	
	Junior	44 (17.6)	
	Senior	92 (36.8)	
Living situations	Living alone	145 (58.0)	
	Living with parents or grandparents	81 (32.4)	
	Living with grandparents and parents	24 (9.6)	
Number of siblings	0	20 (8.0)	1.35±0.77
	1	147 (58.8)	
	2	60 (24.0)	
	≥3	23 (9.2)	
Economic status	High	70 (28.0)	
	Middle	125 (50.0)	
	Low	55 (22.0)	
Religion	None	164 (65.6)	
	Protestant	50 (20.0)	
	Catholic	18 (7.2)	
	Buddhist	16 (6.4)	
	Others	2 (0.8)	

제가 세 명이라서, 내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이 있었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30.38세로 30~34세가 58.8%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33.6%, 35~37세가 14.4%, 생각해보지 않음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아이 출산 연령은 35~39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35.07세이었다. 임신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0.4%로, 교육을 받은 기관은 고등학교가 33.3%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전공 및 교양 수업)가 28.6%, 초·중·고등학교가 27.8%, 보건소가 10.3% 순이었다. 임신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10점 만점에 7.64점이었으며, 교육 참여의사는 10점 만점에 5.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자녀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8점이었다. 문항별로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문항의 점수가 높았으며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와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Table 3).

가임력 관련 인식의 전체 정답률은 30.7%였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여성의 가임력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61.6%가 맞는 답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 의도치 않았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56.8%)과 '시험관 아기 기술을 한 부부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30.4%)이 그 다음 순이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여성의 임신능력이 약간 감소하는 연령대는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로 5.6%만이 정답을 표시하였고, '25세 미만 여성과 남성이 배란기 때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때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8.4%)과 '여성과 남성이 피임 없이 1년간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을 때 여성이 25~35세일 때 임신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21.6%)도 정답률이 낮았다.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의 전체 정답률은 63.1%로,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임신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로 86.8%였고, '35세 이상의

Table 2. Aware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mong Participan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arriage intention	Intend to do/have an intention	201 (80.4)	
	Do not intend to do	49 (19.6)	
Ideal age of marriage	25~29	118 (47.2)	29.78±2.24
	30~36	129 (51.6)	
	Not sure	3 (1.2)	
Intend to have children	Yes	160 (64.0)	
	None	65 (26.0)	
	Not sure	25 (10.0)	
Reason why don't want children (multiple selection, n=90)	Financial burden	27 (22.5)	
	Devote more time to job	19 (15.8)	
	Reduce time and happiness	19 (15.8)	
	Pressure/responsibility	21 (17.5)	
	Children have to study hard	6 (5.0)	
	Not sure	13 (10.9)	
	Other	15 (12.5)	
Ideal number of children	0	6 (2.4)	2.14±0.67
	1	19 (7.6)	
	2	161 (64.4)	
	3	60 (24.0)	
	4	3 (1.2)	
	Not sure	1 (0.4)	
Decisive factor of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 rearing/educational expense	97 (38.8)	
	Financial burden	61 (24.4)	
	Social/public life	49 (19.6)	
	Have child rearing supporter or not	11 (4.4)	
	Have childcare facilities or not	11 (4.4)	
	Health condition	6 (2.4)	
	Other	15 (6.0)	
Ideal age of first childbirth	25~29	84 (33.6)	30.38±2.20
	30~34	147 (58.8)	
	35~37	11 (4.4)	
	Not sure	8 (3.2)	
Ideal age of last childbirth	28~29	5 (2.0)	35.07±3.15
	30~34	88 (35.2)	
	35~39	126 (50.4)	
	40~55	23 (9.2)	
	Not sure	8 (3.2)	
Received education about pregnancy	Yes	126 (50.4)	
	None	124 (49.6)	
Place to get information about pregnancy (N=126)	University	36 (28.6)	
	Health center	13 (10.3)	
	High school	42 (33.3)	
	Middle/Elementary school	35 (27.8)	
Necessity of education	0~10		7.64±2.17
Intention of involvement	0~10		5.75±2.76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임신 중 의학적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다'가 81.2%,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가 74.8% 순이

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35세 이상의 여성은(인공수정을 받지 않더라도) 젊은 여성보다 다산(다태아)의 확률이 높다'로 26.0%였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임신 중에 양수천자를

Table 3. Attitudes of Childbearing

(N=250)

Questions	Male	Female	t
	M±SD	M±SD	
Being a parent is worthwhile in life	3.66±0.58	3.34±0.73	3.61**
Having children makes you less lonely when old	3.36±0.69	3.13±0.79	2.20*
Having children helps financially when old	2.50±0.70	2.55±0.84	-0.45
Having a child is a social obligation	2.61±0.91	2.34±0.89	2.12*
Mothers can raise children better than fathers	2.64±0.80	2.32±0.85	2.83**
Total score	2.95±0.44	2.74±0.60	3.16**

* $p < .05$. ** $p < .01$.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28.4%,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가 58.8%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차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의향, 자녀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태도, 임신 관련 교육 참여의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임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학년에 따라, 교육 참여의사는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의향은 남성이 92.1%, 여성이 75.3%로 남성의 결혼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chi^2=9.49, p < .01$), 자녀의 필요성 또한 남성이 81.6%, 여성이 56.3%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chi^2=14.85, p < .01$). 자녀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이었으며 ($t=3.16, p < .01$), 임신 관련 교육 참여의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t=2.05, p < .05$). 임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인 3, 4학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4.22, p < .05$). 교육 참여의사는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17, p < .05$). 자녀에 대한 태도는 모든 세부 문항에서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한 문항을 제외한 4개의 문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Table 3).

가임력 관련 인식 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0.79, p = .430$). Table 4에서 성별에 따른 문항별 답변의 차이를 보면, 가임력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 대해 남성의 25.0%, 여성의 38.0%가 과대평가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hi^2=8.40, p < .05$). 여성의 임신능력이 약간 감소하는 연령대에 대한 문항은 남성의 9.2%, 여성의 4.0%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남성의 90.8%, 여성의

96.0%가 임신능력이 약간 감소하는 연령대를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chi^2=2.66, p = .260$). 여성의 임신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연령대에 대한 문항은 남성의 75.0%, 여성의 74.2%가 더 높은 연령대로 알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chi^2=5.03, p = .153$). 25세 미만의 배란기 여성과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남성의 63.2%, 여성의 79.9%가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hi^2=9.61, p < .05$). 25~35세의 여성이 1년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때 임신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의 65.8%, 여성의 74.1%가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chi^2=3.20, p = .362$). 35~40세의 여성이 1년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때 임신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의 52.7%, 여성의 49.5%가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chi^2=4.75, p = .191$). 우리나라의 난임 부부 비율에 대해 남성의 56.6%, 여성의 56.9%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남성의 30.2%, 여성의 13.8%가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hi^2=15.04, p < .01$). 시험관 아기 시술로 아이를 가질 확률에 대해서는 남성의 25.0%, 여성의 32.8%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남성의 18.4%, 여성의 9.8%가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chi^2=5.84, p = .120$).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평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 문항에서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able 5).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 중 남성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인공수정을 받지 않더라도) 젊은 여성보다 다산(다태아)의 확률이 높다'로 19.7%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여성에서 가장

Table 4. Awareness of Fertility Issues

(N=250)

Questions	Categories	Male	Female	χ^2	Correct answer rate
		n (%)	n (%)		n (%)
At what age are women most fertile?	15~19	7 (9.2)	4 (2.3)	8.40* [†]	154 (61.6)
	20~24 [†]	50 (65.8)	104 (59.8)		
	25~29	17 (22.4)	61 (35.1)		
	30~44	2 (2.6)	5 (2.9)		
At what age is there a slight decrease in women's ability to become pregnant?	15~24	0 (0.0)	0 (0.0)	2.66 [†]	14 (5.6)
	25~29 [†]	7 (9.2)	7 (4.0)		
	30~34	36 (47.4)	88 (50.6)		
	35~59	33 (43.4)	79 (45.4)		
At what age is there a marked decrease in women's ability to become pregnant?	25~34	1 (1.3)	0 (0.0)	5.03 [†]	63 (25.2)
	35~39 [†]	18 (23.7)	45 (25.9)		
	40~44	16 (21.1)	53 (30.5)		
	45~60	41 (53.9)	76 (43.7)		
A young woman (<25 years) and a man have unprotected intercourse at the time of ovulation—how large is the chance that she will then become pregnant?	0~29%	8 (10.5)	9 (5.2)	9.61*	46 (18.4)
	30~39% [†]	20 (26.3)	26 (14.9)		
	40~49%	17 (22.4)	35 (20.1)		
	50~100%	31 (40.8)	104 (59.8)		
A woman and a man who regularly have unprotected intercourse during a period of 1 year: How large is the chance that she will become pregnant if she is 25~30 years old?	0~69%	5 (6.6)	12 (6.9)	3.20	54 (21.6)
	70~79% [†]	21 (27.6)	33 (19.0)		
	80~89%	19 (25.0)	59 (33.9)		
	90~100%	31 (40.8)	70 (40.2)		
How large is the chance that she will become pregnant if she is 35~40 years old?	0~49%	20 (26.3)	39 (22.4)	4.75	65 (26.0)
	50~59% [†]	16 (21.1)	49 (28.2)		
	60~69%	24 (31.6)	65 (37.4)		
	70~100%	16 (21.1)	21 (12.1)		
How many couples in Korea are involuntarily childless?	0~4%	1 (1.3)	4 (2.3)	15.04** [†]	142 (56.8)
	5~9%	22 (28.9)	20 (11.5)		
	10~19% [†]	43 (56.6)	99 (56.9)		
	20~29%	10 (13.2)	51 (29.3)		
Couples that undergo treatment with IVF—what is their chance, on average, of having a child?	0~19%	23 (30.3)	42 (24.1)	5.84	76 (30.4)
	20~29%	20 (26.3)	58 (33.3)		
	30~39% [†]	19 (25.0)	57 (32.8)		
	40~100%	14 (18.4)	17 (9.8)		
Average correct answer rate					30.7%

* $p < .05$, ** $p < .01$; [†]The category that contains the correct answer according to the published data; [†]Fisher's exact test.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임신 중에 양수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25.3%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점수는 전공, 학년,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계열(7.26점)이 비보건계열(5.17점)보다 높았으며($t=7.24, p < .01$), 학년별로는 4학년(6.96점)이 2학년(5.41점)보다 더 높았고($F=5.87, p < .05$), 경제수준이 '중'인 집단(6.75점)이 '하'인 집단(5.7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36, p < .05$)(Table 6).

4.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차이

일반적 특성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남녀 대상자의 결혼 의향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F=7.95, p < .05$). 여성은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높고(2.57점)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낮았던(1.95점) 반면, 남성은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Table 5. Questions Concerning Maternal Age-related Risks of Childbearing

(N=250)

Questions	Correct answer rate			χ^2
	Male	Female	Total	
	n (%)	n (%)	n (%)	
Women >35 years experience more problems getting pregnant than younger women [†]	63 (82.9)	154 (88.5)	217 (86.8)	1.45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develop medical problems during pregnancy than younger women [†]	60 (78.9)	143 (82.2)	203 (81.2)	0.36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baby with Down Syndrome compared to younger women [†]	50 (65.8)	137 (78.7)	187 (74.8)	4.70*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baby with a congenital anomaly than younger women [†]	51 (67.1)	127 (73.0)	178 (71.2)	0.89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caesarean section than younger women [†]	51 (67.1)	121 (69.5)	172 (68.8)	0.15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preterm baby than younger women [†]	50 (65.8)	128 (73.6)	178 (71.2)	1.56
Women >35 years are eligible for amniocentesis during pregnancy [†]	27 (35.5)	44 (25.3)	71 (28.4)	2.73
Women <20 years are at higher risk of having a low birth weight baby than women 20~29 years [†]	43 (56.6)	117 (67.2)	160 (64.0)	2.61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low birth weight baby than younger women [†]	50 (65.8)	97 (55.7)	147 (58.8)	2.20
Women >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multiple birth than younger women (even if not using fertility treatment) [†]	15 (19.7)	50 (28.7)	65 (26.0)	2.23
Average correct answer rate				63.1%

* $p < .05$; [†] Indicates correct response based on current literature.

Table 6.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on Knowledge about High Risk Pregnancy by Characteristic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Knowledge about high risk pregnancy		
			M±SD	t or F	Scheffé
Gender	Male	76 (30.4)	6.05±2.52	-1.11	
	Female	174 (69.6)	6.43±2.40		
Department	Medical and health	137 (54.8)	7.26±1.90	7.24**	
	Others	113 (45.2)	5.17±2.54		
Grade	1 ^a	58 (23.2)	6.55±1.98	5.87*	d > b*
	2 ^b	56 (22.4)	5.41±2.78		
	3 ^c	44 (17.6)	5.80±2.51		
	4 ^d	92 (36.8)	6.96±2.25		
Economic status	High ^a	70 (28.0)	5.99±2.61	4.36*	b > c*
	Middle ^b	125 (50.0)	6.75±2.22		
	Low ^c	55 (22.0)	5.73±2.54		

* $p < .05$, ** $p < .01$.

정도가 낮았고(2.47점)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높았다(3.50점)(Figure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에 따른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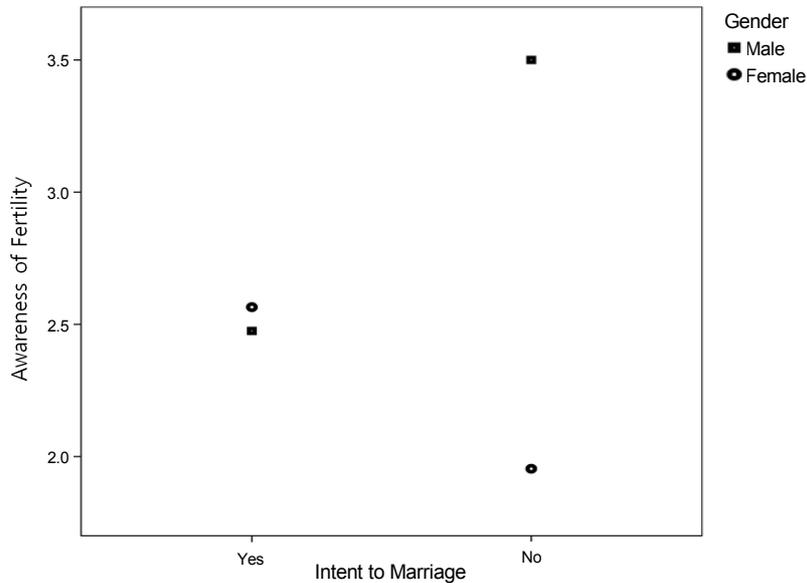


Figure 1. The awareness of fertility according to intent to marriage by gender.

논 의

본 연구는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은 8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73.0%(KIHASA, 2015)보다 높은 비율로,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Park (2016)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결혼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이 22.53세로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초보인생 구조시기에 속하며, 모든 대상자가 미혼으로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Choi, & Lee, 2014). 희망 결혼 적령기는 29.78세, 첫 아이 출산은 30.38세, 막내 아이 출산은 35.07세로 나타났는데, 평균 연령은 긍정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35세 이상에서 막내 아이 출산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59.6%로 나타나 이들에게는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 희망자는 64.0%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55.2%(KIHASA, 2015), 30세 이상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2.49점이었던 연구결과(Je & Choi, 2014)보다는 높았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자녀 희망 비율인 77.9%보다는 낮았다(Kim & Hong, 20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할 것이며, 자녀 희망 비율이 더 높기는 하였으나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36.0%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탐색하고 필요한 교육,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임신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비율이 49.6%로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점, 교육의 필요성은 비교적 높았으나 교육의 참여 의사는 낮게 나타난 점은 교육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임력 관련 인식은 8점 만점에 2.46점, 정답률은 30.7%로 낮은 편이었다. 대체로 여성의 가임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있었으며, 난임 혹은 불임과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이는 스웨덴(Lampic, 2006), 미국(Peterson, 2012), 홍콩(Chan,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스웨덴 대학생들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가임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불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미국 대학생 대부분이 적어도 두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약 40~50%의 대상자가 그들의 막내 아이를 고령산모인 35~44세 사이에 가지기를 원했다. 홍콩 대학생의 대다수는 학교 대신 언론을 통해 성교출산 관련 지식을 획득했다고 했으며, 교육은 해부학적 성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난임이나 불임 문제에는 적은 시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령임신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정답률은 63.1%로, 30대 이상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정답률 55.5%보다 높았다(Je & Choi, 2014). 그러나 나머지 36.9% 대상자는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고위험 임신이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식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 중 보건계열 전공 학생이 다수 있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임신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 비율이 50.4%로 과반수 이상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유사한 연구들과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환기로 막연하게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본 연구에서의 희망 결혼 적령기인 29.78세, 첫 아이 출산 희망 연령인 30.38세, 막내 아이 출산 희망 연령인 35.07세와는 연령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까운 시간 내에 부모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출산 인구인 대학생의 미래 고위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 및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컸으며,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성별에 따라 일부 문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가치관에 대해 연구한 Kim과 Song (2012)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이 여자보다 자녀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자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즉 결혼 가치관, 출산가치관, 자녀관이 모두 비전통적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대학생의 출산과 자녀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ohn & Kim, 2010).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직업 혹은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담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면,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KIHASA, 2015),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됨의 가치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이 보편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대학생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됨

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문항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약 50% 찬성하여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출산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관이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문항에 중고등학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성의 육아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28~40세의 전문직 남녀를 대상으로 한 Ahu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연령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 및 가사 노동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신전통주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여성은 비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남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만혼 현상과 고령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양성 평등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결혼 예비 교육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출산 후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 비용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가임력 관련 인식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8문항 중 3문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임력이 높은 연령대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과대평가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의 공동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 고령 임신으로 합병증이나 사망 같은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게 될 여성 자신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난임 부부 비율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난임 부부 비율이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성교육이나 임신 관련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10문항 중 1문항만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의 정답률이 63.1%로 선행연구에서의 정답률 55.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Je & Choi, 2014), 보건계열 전공 학생의 정답률이 72.6%, 비보건계열 전공 학생의 정답률이 51.7%로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캐나다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Tough 등(2006)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비보건계열 전공 학생들 정답률이 0.9% 높았으며,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다태아), 양수천자, 저체중아에 대한 인식

이 낮아 Je와 Choi (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다산(다태아), 조산, 제왕절개에 대한 지식이 낮았던 Tough 등(2006)의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섯 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는 남녀의 결혼의향에 따른 가임력 관련 인식이 차이가 있었다. 결혼의향이 있을 경우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관심이 더 많고 그에 따라 지식 정도가 높을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결혼의향이 있을 경우 남녀의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 여성은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낮은 반면 남성은 가임력 관련 인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Na & Kim, 2012)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임력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이라는 개념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는 연령, 전공, 성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데(Kim & Hong, 2013), 성별에 따라 성경험이 다른 것도 하나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가임력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계획,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성인기의 주요 과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예비 부모인 남녀 대학생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들의 결혼과 출산 및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은 이들의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적령기를 늦게 생각하였고, 희망 출산연령 또한 늦게 계획하고 있어 고령산모의 고위험 임신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임력 관련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높게 조사되어, 결혼 후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이를 갖지 않거나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결혼, 출산 및 가임력에 대한 인식과 고위험 임신 관련 지식에 대한 원인을 밝히거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

다.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 관련 교육은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효과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일부 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가임력 관련 인식을 측정할 도구는 선행연구들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던 바, 추후 관련 연구를 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구하고, 예비 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전체 대학생으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전국적인 연구와 비교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임력과 고위험 임신 관련 교육 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u, S. Y., Cho, H. K., & Koh, S. K. (2010). Research on the delayed family formation phenomenon among the never-married professionals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with focus group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19.
- Baek, K. S., & Kim, H. S. (2013).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gender-role attitudes and family functioning on perceptions of marriag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3), 205-223.
- Baik, J. W., Nam, H. E., & Ryu, J. S. (2012). The effects of the college students' will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playing on self-efficacy,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1), 173-183.
- Bayrampour, H., Heaman, M., Duncan, K. A., & Tough, S. (2012). Comparison of perception of pregnancy risk of nulliparous women of advanced maternal age and younger age. *Journal of Midwifery and Women's Health, 57*(5), 445-453.
- Chan, C. H. Y., Chan, T. H. Y., Peterson, B. D., Lampic, C., & Tam, M. Y. J. (2015). Intentions and attitudes towards parenthood and fertility awareness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Hong Kong: A comparison with Western samples. *Human Reproduction, 30*(2), 364-372.
- Choi, H., & Lee, S. H. (2014).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87-595.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Heo, H., Hwang, J. Y., Kim, D. G., Lee, H. J., Sim, J. C., & Yang, H. S. (2004). A clinical study of pregnancy and delivery in pregnant women 35 years and older.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47(3), 458-463.
- James, D. K. (2011). *High risk pregnancy: management options* (4th ed.). Philadelphia, PA: Saunders & Elsevier.
- Je, N. J., & Choi, S. Y. (2014). The study on unmarried women over the age of 30, regarding the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and the knowledge of high risk pregna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8(2), 250-263.
- Johnson, J. A., & Tough, S. (2012). Delayed child-bearing.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Canada*, 34(1), 80-93.
- Kim, H., & Hong, Y. (2013).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4(1), 13-24.
- Kim, M. Y., & Song, Y.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03-311.
- Kim, T. H., Yu, J. Y., & Kim, H. H. (2012). A study on the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5(1), 1-22.
- Koo, Y. H., Kim, S. K., Shim, J. Y., Won, H. S., Lee, P. R., & Kim, A. (2006). Analysis of preterm birth rate based on birth certificate data: from 1995 to 2003.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49(9), 1855-1865.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5). *The public's perception and needs monitoring for coping with a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Report No. 2015-07). Retrieved from KIHASA website: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newbooks_pdsissue/view.do?menuId=43&tid=71&bid=18&ano=2018
- Lampic, C., Svanberg, A. S., Karlström, P., & Tydén, T. (2006). Fertility awareness, intentions concerning childbearing, and attitudes towards parenthood among female and male academics. *Human Reproduction*, 21(2), 558-564.
- Lee, H. Y. (2007).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Meissner, C., Schippert, C., & von Versen-Höyneck, F. (2016). Awareness, knowledge, and perceptions of infertility, fertility assessment,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in the era of oocyte freezing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ssisted Reproduction and Genetics*, 33(6), 719-729.
- Na, Y. M., & Kim, K. Y. (2012).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16(2), 215-234.
- OECD. (2017). OECD Family database (SF2.1: Fertility rates). Retrieved from OECD website: https://www.oecd.org/els/family/SF_2_1_Fertility_rates.pdf
- Oh, J. (2007). Effect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stress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of women with preterm labor.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0(2), 99-109.
- Park, H. S., Lee, G. E., & Hong, Y. L. (2000). The effect of health education on the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3), 239-254.
- Park, J. (2016).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and expectation for social support on marriage inten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4(4), 21-35.
- Peterson, B. D., Pirritano, M., Tucker, L., & Lampic, C. (2012). Fertility awareness and parenting attitudes among America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Human Reproduction*, 27(5), 1375-1382.
- Sohn, S. Y., & Kim, E. (2010).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4(4), 169-200.
- Sørensen, N. O., Marcussen, S., Backhausen, M. G., Juhl, M., Schmidt, L., Tydén, T., & Hegaard, H. K. (2016). Fertility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parenthood among Danish university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13(1), 146.
- Statistics Korea. (2017).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Birth statistics,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16*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3/index.board
- Tough, S., Benzie, K., Newburn-Cook, C., Tofflemire, K., Fraser-Lee, N., Faber, A., et al (2006). What do women know about the risks of delayed childbearing?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4), 330-334.
- Vassard, D., Lallemand, C., Nyboe Andersen, A., Macklon, N., & Schmidt, L. (2016). A population-based survey on family intentions and fertility awareness in women and men in the United Kingdom and Denmark. *Upsala Journal of Medical Sciences*, 121(4), 244-251.